



부활 제5주일(5월 18일)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1-33 13,34-35)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탁에 앉아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을 때, 유다는 두려운 눈빛으로 예수님을 뒤돌아 보며 혼자 밖으로 나가고 있다. 그는 왼손으로 계단 난간을 붙잡고 있어 배신의 발걸음이 무겁다는 것을 암시한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요한 13,30).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빛으로 가득하지만 유다가 홀로 머문 곳은 어둡다. 유다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예수님께서서는 붉은 옷을 입고 있어 성체성사가 사랑의 성사임을 암시하고, 예수님 머리 뒤로 후광이 빛나고 있어 성체성사가 거룩한 잔치임을 나타낸다.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신 후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사랑의 새 계명을 들려주셨다.

작가 칼 하인리히 블로흐 | 1876년, 동판에 유채, 84x104cm, 국립역사박물관, 덴마크.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14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환호송으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당신의 사랑 안에서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시며, 저희 마음을 당신의 평화로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 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방에서 31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32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33 애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34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나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이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깊이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요한 13,34 참조).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더 키워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내가 더 이해하고 품어야 할 사람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봅시다(요한 13,34 참조).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수님은 조건 없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도록 각자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갈등과 분열이 많습니다. 정치적 대립, 세대 간 갈등, 차별과 혐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이 분열을 넘어서는 길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이해하고, 배려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납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다툼이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것,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작은 실천이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5).

생명의 말씀 써보기

[요한 20장 9절]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살아가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 조부모와 노인 공경 ▶ 5월 30일 - 6월 1일 가정들, 조부모들, 노인들의 희년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 ① 우리 공동체(구역, 소공동체) 속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구성원들과 함께 식사 대접하기

내 삶 속에서

- ① 우리 이웃 중 홀로 생활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안부전화 드리기
- ② 조부모를 위하여 묵주기도 바치기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14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